

韓國漢字音의 一音節化 경향에 대하여

- 合口 3等 陰聲韻을 중심으로 -

이경철*
kanzi22@empas.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5. 止攝 合口 3等韻 |
| 2. AC 3等韻의 體系 | 6. 韻別 수용 양상의 정리 |
| 3. 果攝 戈韻 | 7. 마치며 |
| 4. 蟹攝 合口 3等韻 | |

主題語: 한국한자음(Sino-Korean), 1음절(One Syllable), 3등운(Third Rhymes), 合口韻(Rounded Rhymes), 음절 구조(Syllable Structure)

1. 들어가며

연구 중에 가끔 취미삼아 LPGA를 시청하는 일이 필자에게는 머리를 식히는 안식의 시간이 되곤 한다. 텔레비전을 시청한 던 중에 LPGA의 스웨덴 선수 중에 [Anna Nordqvist]라는 선수가 눈에 들어 왔는데, 한국어로는 [안나 노르드크비스트]라고 한다. 스웨덴어의 [rdqvi]라는 1音節이 한국어로는 [르드크비]라는 4音節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스웨덴어에서는 4개의 자음을 연속해서 하나의 母音과 결합해서 발음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자음이 하나의 母音과만 결합하여 4音節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音韻論을 연구하는 필자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다가왔다.

이처럼 어느 言語에서나 外國語를 自國語로 수용할 경우에는 두 언어의 音素體系뿐만 아니라 그 音節構造가 다르기 때문에 外國語를 自國語의 音素體系 및 音節構造에 맞춰 변형된 모습으로 수용하게 된다. 韓國語에서 中國語를 수용하여 韓國漢字音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서도 이러한 변형을 거친 수용과정이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韓國漢字音은 15세기의 傳承字音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15세기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일본학과 교수

傳承字音 역시 그 이전에 전승되던 字音을 한글로 기록한 것인데, 중국의 5세기에서 8세기에 걸친 中古音의 音韻體系 및 音節構造는 이를 수용할 당시의 韓國語 音素體系 및 音節構造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 漢字音을 韓國語로 수용할 때는 韓國語의 音素體系와 音節構造에 맞춰 변형된 모습으로 수용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어로서의 자연스러운 音節構造라는 것에는 하나의 漢字는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하나의 音節로 수용한다고 하는 1音節 수용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한자음의 字音形을 中古音과 비교해서 논하거나 그 母胎音을 판별할 경우에는 이러한 1音節化를 통한 變容의 관점을 배제하고서는 잘못된 해석에 이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李京哲(2018a)에서는 1·2等韻에 대해서, 李京哲(2018b)에서는 開口 3等韻에 대해서 한국한자음의 1音節化 경향으로 인한 變容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李京哲(2013)에서는 한국한자음에서 合口 丁類는 拗音性を 생략하고 u나 o로 合口性を 반영했으며, 丙類는 合口性を 생략하고 i母音이 들어간 형태로 拗音性만을 반영하고 있음을 논했다.

본고에서는 中古音의 合口 3等 陰聲韻을 중심으로 한국한자음에 수용되는 과정에 어떠한 變容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1音節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가도록 한다.

각 한자음의 字音形은 다음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한국한자음: 15세기 전승자료¹⁾

吳音: 法華經, 般若經, 新譯華嚴經, 光明真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²⁾

漢音: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孔雀經, 文鏡秘府論³⁾

이하 上古音은 OC로, 中古音은 AC로 약칭하며, 이를 EAC, MAC, LAC로 나누며, 한국한자음은 SK, 일본 吳音은 SJG, 일본 漢音은 SJK로 약칭한다⁴⁾.

1) 崔志守(2014)의 分韻表를 참조하였다.

2) 宋在漢(2012:61-62)의 分韻表를 참조하였다.

3) 蒙求·群書治要·三藏法師傳·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의 分韻表를 참조하였다.

4) OC는 Old Chinese, AC는 Ancient Chinese, SK는 Sino-Korean,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의 약자에 해당한다. AC는 Early, Middle, Late의 두문자(E·M·L)로 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한다.

2. AC 3等韻의 體系

AC의 合口 3等韻은 高位中舌母音 *wi*를 가진 丁類와 高位前舌母音 *wi*를 가진 丙類의 두 종류가 있는데⁵⁾, MAC까지는 이 2종의 구별이 존재하였지만, LAC에서 丁類가 丙類에 합병된다. 이는 MAC까지는 高位中舌母音 *wi*와 高位前舌母音 *wi*를 구별하는 母音體系였지만, LAC는 高位中舌母音 *wi*가 존재하지 않는 母音體系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AC에서는 일부 3等韻이 4等韻과 합류하는데, 이는 3等韻의 核母音 중에서 *a·e*가 前舌母音인 介音 *wi*의 영향으로 *wie*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C 3等 合口韻의 체계를 그 開口韻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AC 3等韻의 體系

構造	開口韻	合口韻
介音+核母音+∅	X	戈 - <i>wia</i>
	麻 - <i>ia</i>	X
	陽을 - <i>iaŋ/k</i>	陽 - <i>wiaŋ/k</i>
	陽갑 - <i>iaŋ/k</i>	X
	元 - <i>iɛn/t</i>	元 - <i>wiɛn/t</i>
	仙을 - <i>ian/t</i>	仙정 - <i>wian/t</i>
	仙갑 - <i>ian/t</i>	仙명 - <i>wian/t</i>
	嚴 - <i>iɛm/p</i>	凡 - <i>wiɛm/p</i>
	鹽을 - <i>iəm/p</i>	X
	鹽갑 - <i>iəm/p</i>	X
介音+核母音+u	魚을 - <i>iɬu</i>	X
	魚갑 - <i>iɬu</i>	X
	虞을 - <i>iəu</i>	X
	虞갑 - <i>iəu</i>	X
	尤을 - <i>iu</i>	X
	尤갑 - <i>iu</i>	X
	宵을 - <i>iau</i>	X
	宵갑 - <i>iau</i>	X
	東을 - <i>iɬaŋ/k</i>	鍾정 - <i>wiɬaŋ/k</i>
	東갑 - <i>iɬaŋ/k</i>	鍾명 - <i>wiɬaŋ/k</i>

5) 대부분의 학자가 中古音 撮口呼에 대해 丁類는 *iw*로, 丙類는 *iw*로 再構하고 있지만, 李京哲(2009)에서는 撮口呼를 대해 丁類는 *wi*로, 丙類는 *wi*로 再構하고 있다.

介音+核母音+i	祭을 -iai	祭정 -wiai
	祭갓 -iai	祭병 -wiai
	X	廢 -wīei
	支을 -iAi	支정 -wīAi
	支갓 -iAi	支병 -wīAi
	脂을 -iəi	脂정 -wīəi
	脂갓 -iəi	脂병 -wīəi
	之을 -ii	X
	之갓 -ii	X
	微 -ie	微 -wīe
	庚3 -iaiy/k	庚3 -wīaiy/k
	淸 -ieiy/k	淸 -wīeiy/k
介音+核母音+i	蒸을 -iəiy/k	職 -wīəik
	蒸갓 -iəiy/k	X
	臻 -iAin/t	文 -wīAin/t
	眞을 -iəin/t	諄정 -wīəin/t
	眞갓 -iəin/t	諄병 -wīəin/t
	欣 -iin/t	X

위의 <표1>에서처럼 AC의 3等 合口韻은 그 核母音 뒤에 어떤 母音이 오느냐에 따라 <wī·wi+核母音+∅>구조인 韻, <wī·wi+核母音+u>구조인 韻, <wī·wi+核母音+i>구조인 韻, <wī·wi+核母音+i>구조인 韻과 같이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wī·wi+核母音+∅>구조인 韻은 그 核母音이 a·a·e인 에 해당하는 戈韻, 陽韻, 元韻, 仙韻 丙丁類, 凡韻이 이에 속한다. 戈韻은 MAC까지 -wia를 유지하다가 LAC에서 -wia²⁾로 변한다.

<wī·wi+核母音+u>구조인 韻은 鍾韻 丙丁類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開口韻의 경우에는 <i·i+核母音+u>구조로 核母音이 전후의 母音과 결합하기 쉬운 구조이지만, 合口韻의 <wī·wi+核母音+u>구조에서는 核母音 전후에 w와 u라는 동일한 자질의 母音에 끼이게 되므로 이러한 音節構造가 성립되기 어려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鍾韻 역시 丁類는 -wiau/k에서 -wion/k로, 丙類는 -wiau/k에서 -wion/k으로 변화된 상태에서의 音韻體系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a는 後舌低位母音 a[+low/+back]를 의미하며, a1은 ㅏ와의 구별이 없는 a[-low/+back]를 의미하며, a2는 ㅑ와 ㅓ와의 구별이 없는 a[-low/-back]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李京哲(2018a:126-127)을 참조하기 바란다.

<wi·wi+核母音+i>구조인 韻은 그 核母音이 ʌ·a·e·ə·e에 해당하는 한다. 이 중에서 ʌ·ə·∅는 核母音 a에서 後代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iai→iʌi→iəi→i∅i와 같이, 核母音이 前接 高位母音 i·i와 後接 高位母音 i 사이 끼여 高位化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支韻 <wi·wi+ʌi>, 脂韻 <wi·wi+əi>, 之韻 <wi·wi+∅i>은 高位化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微韻은 核母音과 陰韻尾 i의 결합으로 ie로 변화된 상태로 판단된다. 止攝 合口韻은 開口韻과 마찬가지로 MAC까지 丙丁類를 구별하고 있었지만, 高位母音 사이에 核母音이 끼여 이미 核母音이 상실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LAC에서는 丁類가 丙類에 합병된다.

核母音이 a인 祭韻은 後舌母音 a와 前舌母音 a를 구별하는 언어체계에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祭韻은 MAC까지 丙丁類를 구별하고 있었지만, LAC에서 丁類가 丙類에 합병되며, 祭韻은 4等 齊韻에 합병된다.

<wi·wi+核母音+i>구조인 韻은 그 核母音이 ʌ·ə에 해당하는 職韻, 文韻, 諄韻뿐이다. 이 ʌ·ə 역시 核母音 a에서 후대에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iai→iʌi→iəi→i∅i와 같이, 核母音이 前接 高位母音 i·i와 後接 高位母音 i 사이 끼여 高位化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하 AC의 3等 合口 陰聲韻에 걸친 韓國漢字音에서의 수용 양상을 AC의 韻별로 나누어 AC 및 SJG·SJK와의 대조를 통해 SK에 걸친 1音節化의 양상에 대해 고찰해 가도록 한다.

3. 果攝 戈韻

<표2> 戈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戈	-wia	-wiʌ	-wia2	-wa	?	-oa

戈韻은 果攝에 속하는 韻으로, EAC의 開口1等 歌韻은 a로, 合口1等 戈韻은 wa로, 開口3等 戈韻은 ia로 재구되므로, 合口3等 戈韻은 wia로 재구된다. MAC에서는 a에 前接하는 i의 영향으로 wia가 wiʌ로 변하며, LAC에서는 i가 존재하지 않는 母音體系로 인해 介音 i가 i로 흡수된다. 이로 인해 重紐의 을류 i는 갑류 i로 丁類 wi는 갑류 wi로 합류한다. 또한 LAC 전기에는 1等 重韻인 後舌中位母音 ʌ, 後舌低位母音 a가 하나의 a1[-low/+back]으로, 2等 重韻인 前舌低位母音 a, 前舌中位母音 e가 하나의 a1[-low/+front]로 합류하며, LAC 후기에는 ʌ·a·a·e가 그 구별을 잃고 a2[-low/-back]라는 하나의 母音으로 통합된다).

먼저 SK가 EAC를 반영했다면 <우으아>uia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는 3音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으>i를 脫落시킬 경우 <우아>ua가 되는데, 이를 1音節化시킬 경우 母音調과 작용하여 <와>oa가 된다. 또한 SK가 MAC를 반영했다면 <우으으>uie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는 3音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으>i를 脫落시킬 경우 <으으>oe가 되는데, SK에 <오·>oe라는 字音形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이 1音節로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SK가 LAC를 반영했다면 <우이아>uia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는 3音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위아>wia가 되지만 이 역시 2音節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合口性만을 배제하여 3等 開口韻과 같은 <아>ja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러한 字音形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SK에서 合口 3等 戈韻이 合口 1等 戈韻과 같은 -oa형으로 출현하는 것은 EAC를 반영하여 <우으아>uia → 오아oa → 와oa라는 母音調과 1音節化라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단지 SK에서 다른 合口韻에서도 <와>oa는 출현하지만, <오·>oe와 같이 그 核母音을 아래아 <으>e로 반영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SK에서 아래아<으>e는 주로 AC의 後舌中位母音 ʌ와 前舌中位母音 e에 대응하고 있어 중세한국어까지 低位母音 <아>a와 구별되는 中位母音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母音 <오>o와 결합하여 <오·>oe로 출현하는 예가 없다는 것은 SK의 수용 당시에 한국어에 <으>e가 音素로서 독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MAC를 반영하더라도 <우으으>uia → 으으oe → 와oa라는 과정을 거쳐 성립했을 가능성은 남는다.

4. 蟹攝 合口 3等韻

<표3> 蟹攝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祭正	-w̄iai	-w̄iai	-wiei	-we	-wei	-ui
祭명	-w̄iai	-wiei	-wiei	-wei		-j̄ai
廢	-w̄iei	-w̄iei	Fo2i	-ai	-ai	-j̄ai

먼저 SK에서 祭韻 開口의 淸류를 -ai형으로, 濁류를 -j̄ai형으로 반영한 점을 건주어 비교하면, 祭韻 丁類는 -ui형이 기대되지만 -ui형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開口

7) 각주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을류의 -ai형이 開口 갑류의 -jai형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LAC 이전의 층을 반영한다고 할 때, 丁類가 LAC 이전의 층을 반영한다면 常用漢字 이외의 한자에 해당하는 <穢穢궤>⁸⁾와 같은 -uai형, 즉 <衛>는 <웨>uai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ui형, 즉 <위>ui로 반영된 것은 다분히 止攝韻과 합류한 형태의 LAC 이후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 <궤>와 같은 -uai형도 1音節로서는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SK에 -uai형 자체도 그 예가 적으며, -uain/uaiik형, -uain/uaii형, -uaim/uaiip형이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祭韻 丙類는 SK에서 -jai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開口 甲類와 같은 형태이다. 즉 合口성이 배제된 것이다. SJG는 물론 SJK에서도 合口 丙類에 合口성이 실현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SK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音韻結合상의 문제가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wiai는 SJG에서 -wei-ei형으로 核母音을 e로 반영했듯이, 이미 EAC부터 核母音 a가 介音 i와 韻尾 i 사이에서 音聲的으로는 e로 변화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wiei를 SK에서 수용할 경우 <위에>uii가 되지만 이는 2音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合口성과 拗音성 중 合口성을 버리고 拗音성만을 취해 1音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廢韻은 丁類에 속하는데, SK에서 주로 -jai형으로 나타나 丙類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SK에서 丁類는 wi의 合口성 w만을 취하고 i를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는 SK에서 <웨>uai로 나타나는 것이 기대된다. 이를 반영한 것이 <喙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穢穢예>나 <廢肺吠궤>와 같이 -jai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 <穢穢예>는 丙類와 같은 형태이므로 丁類가 丙類에 합류된 LAC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唇音字인 <廢肺吠궤>도 LAC를 반영한 것일까? LAC에서 唇音字는 輕唇音化로 인해 Pwi가 Fa2i로 변한다. 즉 Pwi가 輕唇音化를 일으켜 F⁹⁾로 변하며, 核母音 e도 前後舌과 低高位의 구분이 없는 a¹⁰⁾로 변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SJK에서도 그 唇音字는 <ㅍ이>와 같은 -ai형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SK 唇音字의 <廢肺吠궤>는 LAC를 반영한 것이 아님이 명백해진다. 그런데 SK 唇音字가 MAC까지의 wiei를 반영한다면 <부으이>puiei가 되어야 하지만, 이는 4音節이 되어 버리며 또한 SK의 唇音字는 合口성이 排除되므로 <브으이>piei가 되는데, 이 역시 3音節이 되어 버리므로, 이는 <비>pei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廢韻이 -jai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MAC에서 -wiei이었던 것이 LAC에서 輕唇音化로 -a2i로 변하기

8) 崔志守(2014:149)를 참조하기 바란다.
 9) P는 重唇音을 F는 輕唇音을 대표하여 나타난 것이다. 한국한자음에 걸친 輕唇音化의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李京哲(2012)에서 각 韻별로 다루고 있다.
 10) a2는 後舌中位 ㅏ·前舌低位 a·前舌中位 e와의 구별이 없는 [ɹ-low-back]를 의미한다. AC에 걸친 이러한 低位母音의 합류에 대해서는 李京哲(2018a)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전에 -wici화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처럼 輕唇音化를 일으키지 않는 방언이 LAC 이전에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5. 止攝 合口 3等韻

<표4> 止攝韻의 변화 및 수용 비교

韻母	EAC	MAC	LAC	SJG	SJK	SK
支정	-wíɬi	-wíɬi	-wii	-wi	-wi	-ui
支병	-wiɬi	-wiɬi	-wii	-wi -ui	-wi -ui	-ju
脂정	-wǐəi	-wǐəi	-wii	-wi	-wi	-ui -uəi -oi
脂병	-wiəi	-wiəi	-wii	-i -ui	-i -ui	-ju -jui
微	-wīe	-wīe	-wii	-wi -i	-wi -i	-ui -i

止攝 3等の 丁類 및 丁類系에 속하는 支·脂·微韻은 牙喉音字가 대부분 -ui형으로, 脣音字가 -i형으로 나타나며, 그 丙類는 脣音字가 -i형으로, 그 밖에는 대부분 -ju형으로 나타난다. 脣音字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丁類를 -ui형으로, 丙類를 -ju형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丁類系의 반영부터 살펴보자. 牙喉音字는 대부분 -ui형으로 나타나는데, 支韻의 <毀 隄>와 脂韻의 <軌 圭>는 -uəi형으로 나타나, 核母音을 반영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인 -ui형은 SJG과 SJK에서도 -wi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견 EAC부터 LAC의 어느 시기에든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SK에서 LAC를 반영했다면 SJK의 경우에서처럼 合口 丁類를 合口 丙類와 같은 wi로 인식하여 丙類와 같은 -ui형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즉 SK에서 丁類는 合口性을 반영하는 형태로, 丙類는 拗音性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별하고 있다는 점은 LAC 이전의 층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支韻 丁類 wíɬi는 SK에서 <우으으이>uɬi로 출현해야 하지만 이는 4音節이 되어 버리므로 먼저 介音 <으>ɬ를 탈락시켜도 <우으이>uɬi라는 3音節이 되기 때문에 核母音 <으>ɬ까지 脫落시키고 <위>ui로 1音節化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일하게 脂韻 丁類 *wiɨi*는 SK에서 <우으어이>*uiɨi* → <우어이>*ui* → <위>*ui*라는 과정을 거쳐, 微韻 *wie*은 SK에서 <우으에>*uiɨe* → <우에>*ui* → <위>*ui*라는 과정을 거쳐 1音節化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ui*형으로 나타나는 <毀韃>와 <軌駞>는 核母音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ui*형보다 이른 시기의 字音形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JG에서도 -*wi*형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SIG보다도 그 시기가 이른 EAC 초기를 母胎로 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SJG에서도 止攝 開口韻은 그 核母音을 반영하여 <근코·期크>와 같은 -*o*형이나 <衣工·氣ケ>와 같은 -*e*형으로 나타나는 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시기, 즉 EAC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환언하면 -*ui*형은 EAC를, -*ui*형은 MAC를 母胎할 가능성이 크다. 단지 앞서 祭韻에서 언급했듯이, -*ui*형은 1音節로서의 부담이 작용하여 1音節의 -*ui*형이 일반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丙類系는 대부분 -*ju*형으로 나타나는데, SJ의 반영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하다. SJGSJK 모두 牙喉音字는 -*wi*형, 舌齒音字는 -*ui*형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두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음을 반영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즉 日本語에 존재하지 않았던 合拗音이 漢字音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지만, ㄷ段合拗音은 ㅈㅊㅈㅊ에만 머물렀고 나머지는 音韻으로 정착을 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SJ에서는 丁類의 <*wi*+主母音+>와 丙類의 <*wi*+主母音+>가 같은 -*wi*형 내지 -*ui*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일본인이 合口의 支韻을 核母音이 介音과 韻尾 사이에서 흡수된 형태로서 丁類를 <*wii*>로, 丙類를 <*wii*>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본어로 전사하는 과정에서는 2拍 이하로 한자음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작용하여, 丁類와 丙類가 동일한 字音形으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SK의 -*ju*형은 SJ의 -*wi*형 내지 -*ui*형과 비교하면 韻尾 *i*가 생략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合口性을 버리고 대신 拗音性만을 취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SJ와의 비교를 통해 보면 SK는 <유이>*ju*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吹炊>의 <취>*tsju*가 이에 해당하는 형태이지만, 이 경우 2音節化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韻尾를 떼어 버리고 1音節化된 -*ju*형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SK가 원음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취>*tsju*와 같은 -*ju*형으로 출현해야 하지만 2音節化의 부담으로 인해 -*ju*형이 주충을 이루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支韻 丙類 *wiɨi*는 SK에서 <우이으이>*uiɨi*로 출현해야 하지만, AC의 核母音 Λ 가 *i*와 *i* 사이에서 高位化한 상태를 <우>*u*로 수용한 듯하다. 이를 반영하면 <우이우이>*uiui*가 되지만 이는 4音節이 되어 버리므로 먼저 介音 <우>*w*를 탈락시켜도 <이우이>*iu*라는 3音節이 되기 때문에 韻尾 <이>*i*까지 脫落시키고 <유>*ju*로 1音節化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일하게 脂韻 丙類 *wiɨi*는 SK에서 <우이우이>*uiui* → <이우이>*iu* → <유>*ju*라는

과정을 거쳐 1音節化한 것으로 판단된다.

微韻 唇音字의 -i형은 <wi+V+i>의 구조에서 <wi+V>가 모두 탈락하고 韻尾介音 i만을 반영한 형태에 해당한다. <h>으로 대표하여 나타내자면 <부어어>puīai가 되어야 하지만, 먼저 唇音 자체의 圓唇性으로 인해 <우>u가 배제되면 <브어어>piīai가 되는데, 이는 1音節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1音節로 성립되려면 <비>piī나 <비>pi가 될 것인데, SK의 朝鮮 중기자료에서 止攝 唇音字가 ii형으로 출현하는 것은 脂韻의 <근비>piī¹¹⁾가 유일하며, 그밖에는 모두 <비>pi, <피>phi, <미>mi로 출현한다. 그런데 蟹攝에서도 唇音字가 皆韻에서 <儻비>로 출현한 예를 보면, 15세기 이전에 한국어에서 <비·피>piī·miī와 <비·미>pi·mi를 구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kiī는 15세기에도 <가>ki와 구별하였지만, 15세기 이전에 이미 <비·피>piī·miī와 <비·미>pi·mi가 그 구별을 상실하여 <비·미>로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SK에서 -ii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와>ii와 <화>hiī뿐인데, <화>hiī 역시 현재 한국인의 발음에서는 <하>hi와 구별을 잃고 있다. 朝鮮 중기자료에서는 <와>ii, <과>kiī, <화>hiī 이외에 <蔥(淸)翹(思)豸(柴)嘶(灑)籜(斯)籜(畜)식>siī¹²⁾와 <鱒(鱒)爾(緇)츠>tshii¹³⁾와 같이 <ㅅ>과 <ㅈ>에서도 -ii형으로 출현하는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朝鮮 중기 이전에 더 많은 子音 뒤에서 <아>와 <와>를 구별했다는 증거가 되며, <비>pi와 <비>piī 역시 그 구별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記紀万葉에서는 キ·ヒ·ミ에 甲類와 乙類라는 2종의 구별이 존재했었는데, 키·히·미 을류는 여러 학자가 ii로 추정하고 있다. 上代日本語에 구지 百濟語라고 단정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언어체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朝鮮 중기 이전에 한반도의 언어체계에서 <비>piī와 <미>miī가 존재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止攝 乙類·丁類系의 <비>pi·<피>phi·<미>mi는 모두 <비>piī·<미>miī에서 朝鮮 중기에 이르는 사이에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韻別 수용 양상의 정리

AC의 3等 合口 陰聲韻이 SK에 수용된 양상을 각 韻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千字文과 新增類合에 <근비>가 출현한다. 崔知守(2014:174)를 참조하기 바란다.

12) 崔知守(2014:131-165)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崔知守(2014:184-186)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6> AC 3等 合口 陰聲韻의 核母音別 SK에서의 수용 양상

韻母	AC	SK	1音節化	비고
戈	-wīɑ	-oa	wīɑ ⇒ oa	w반영, i탈락
祭정	-wīai	-ui	wīai ⇒ ui	母胎의 차이
祭병	-wīai	-jɔi	wīai ⇒ jɔi	i반영, w탈락
廢	-wīei	-jɔi	wīei ⇒ jɔi	母胎의 차이
支정	-wīʌi	-ui	wīʌi ⇒ ui	w반영, i탈락
支병	-wīʌi	-ju	wīʌi ⇒ ju	w반영, i탈락, 韻尾 i탈락
脂정	-wīoi	-ui	wīoi ⇒ ui	w반영, i탈락
		-uoi	wīoi ⇒ uoi	w반영, i탈락
		-oi	wīoi ⇒ oi	w반영, i탈락
脂병	-wīoi	-ju	wīoi ⇒ ju	i반영, w탈락, 韻尾 i탈락 2音節化의 부담으로 주층이 되지 못함
		-jɔi	wīoi ⇒ jui	
微	-wīe	-ui	wīe ⇒ ui	w반영, i탈락 唇音의 w미반영, pii > pi 변화의 가능성
		-i	Pwīe ⇒ Pi	

3等 合口韻은 MAC까지 丙丁類의 구별을 유지하다가 LAC에서 丁類가 丙類에 통합된다. SK에서는 주로 丁類는 介音 i를 脫落시키고, 丙類는 介音 i를 結合시키는 형태로 丙丁類를 구별하고 있어, SK의 주층이 LAC 이전을 母胎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丁類에 해당하는 戈韻의 -oa형, 支韻 丁類·脂韻 丁類·微韻의 -ui형은 介音 wi에서 i를 탈락시키고 w만을 반영하여 이를 主母音 내지 韻尾와 결합하는 형태로 1音節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丁類에 해당하는 廢韻은 介音 wi를 i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母胎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祭韻 丁類의 -ui형은 그 核母音이 생략된 형태로 이 역시 母胎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微韻 唇音字의 -i형은 pii로 수용된 것이 한국어 내에서 15세기 이전에 pi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丙類에 해당하는 祭韻 丙類의 -jɔi형, 支韻 丙類·脂韻 丙類의 -ju형을 통해 介音 wi에서 w를 脫落시키고 i만을 반영하여 이를 主母音 내지 韻尾와 결합하는 형태로 1音節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支韻 丙類·脂韻 丙類의 -ju형은 韻尾 i가 생략된 형태로, 이는 韻尾 i를 반영하는 -jui형이 1音節로 성립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7. 마치며

지금까지 AC의 3등 合口 陰聲韻이 SK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音節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SK에서 3등 合口韻의 丁類는 拗音 i를 생략하고 u나 o로 合口性を 반영하고 있으며, 丙類는 合口 w를 생략하고 i母音이 들어간 형태로 拗音性만을 반영하여 1音節化한다.
- 2) 戈韻은 SK에서 <우으아>uia → <우아>ua → <와>oa로 1音節化한다.
- 3) 祭韻 丁類가 -ui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LAC 이후를 반영한 결과이다. LAC 이전을 반영한다면 -ui형으로 출현해야 한다.
- 4) 祭韻 丙類는 SK에서 <위에>uiæi → <예>jæi로 1音節化한다.
- 5) 廢韻 唇音字가 SK에서 -jæi형으로 출현하는 것은 LAC 이전에 輕唇音化를 거치지 않고 -wici화한 방언이 존재했었다고 보아야 한다. SK의 唇音字가 MAC까지를 반영하면 <빅>pei로, LAC를 반영하면 <매>pai로 나타나야 한다.
- 6) 支韻 丁類는 SK에서 <우으으아>uiæi → <우으아>uei → <위>ui로 1音節化한다.
- 7) 脂韻 丁類는 SK에서 <우으어아>uiæi → <우어아>uei → <위>ui로 1音節化한다.
- 8) 微韻은 SK에서 <우으에>uiæi → <우에>uei → <위>ui로 1音節化한다. 단지 微韻 唇音字의 -i형은 <비·미>pii·mii로 수용하여 <비·미>pi·mi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 9) 支韻·脂韻 丙類는 SK에서 <우이우아>uiui → <이우아>iui → <유>ju로 1音節化한다. 즉 1音節化로 인해 韻尾 i가 脫落된 것으로 보인다.

【参考文献】

- 김정빈(2007)「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組分韻表」『일본오음연구』책사랑, pp.371-530
- 朴炳采(1971)『古代國語의 研究 音韻篇』고려대학교 출판부, pp.112-262
- 宋在漢(2012)『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262-339
- 李京哲(2005)『한일 한자음체계의 비교연구』보고서, pp.105-114, pp.238-254
- _____ (2005)『佛母大孔雀明王經字音研究』책사랑, pp.171-274
- _____ (2009)「中古漢語 撮口呼의 音韻 再考-韓日 漢字音의 例를 中心으로-」『日本研究』第40號,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p.297-309
- _____ (2012)「韓國漢字音의 輕唇音化 반영여부에 관한 고찰-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日本學研究』第36輯,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323-343
- _____ (2013)「韓國漢字音 合口 3等韻의 반영 양상에 대하여-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中心으로-」『日本學報』

第95輯, 韓國日本學會, pp.13-30

_____ (2018a) 「韓國漢字音의 1音節化 경향에 대한 고찰-1·2等韻을 중심으로-」 『日本近代學研究』第62輯, 日本近代學會, pp.125-140

_____ (2018b) 「韓國漢字音의 1音節化 경향에 대한 고찰-3等 開口韻을 중심으로-」 『日本學』第47輯, 東國大學校 日本學研究所, pp.165-184

李京哲·李相怡(2013) 「各國漢字音의 輕唇音化에 대한 比較考察-陽聲·入聲韻을 중심으로-」 『日本學報』第94輯, 韓國日本學會, pp.53-66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탐출판사, pp.198-202

이준환(2011)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통한 /·/의 音價 考察」 『국어학』第61輯, 국어학회, pp.323-358

張榮吉(1993) 「국어 모음추이와 모음조화의 붕괴에 대하여」 『동악어문학』第18輯, 동악어문학회, pp.45-65

崔志守(2014)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관한 研究-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39-192

伊藤智ゆき(2007) 『朝鮮漢字音の研究』汲古書院, pp.231-242

小倉肇(1995) 『日本吳音の研究』新典社, pp.1-737

河野六郎(1979) 『河野六郎著作集2』平凡社, pp.295-511

沼本克明(1995), 「觀智院本類聚名義抄和音分韻表」 『日本漢字音史論輯』築島裕<編>汲古書院, pp.160-164

E.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00-103

William. H. Baxter.(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pp.367-564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14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9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韓國漢字音의 一音節化 경향에 대하여

- 合口 3等 陰聲韻을 중심으로 -

이경철

본 논문에서는 AC의 3等 合口 陰聲韻이 SK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1音節 수용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SK에서 3等 合口韻의 丁類는 拗音 i를 생략하고 u나 o로 合口性を 반영하고 있으며, 丙類는 合口 w를 생략하고 I母音이 들어간 형태로 拗音性만을 반영하여 1音節化한다.
- 2) 戈韻은 SK에서 <우으아>uia → <우아>ua → <와>oa로 1音節化한다.
- 3) 祭韻 丁類가 -ui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LAC 이후를 반영한 결과이다.
- 4) 祭韻 丙類는 SK에서 <위에>uiəi → <에>jəi로 1音節化한다.
- 5) 廢韻 唇音字가 SK에서 -jəi형으로 출현하는 것은 LAC 이전에 輕唇音化를 거치지 않고 -wiei화한 방언이 존재했었다고 보아야 한다.
- 6) 支韻·脂韻 丁類는 SK에서 각각 <우으으이>uiəi → <우으이>uei → <위>ui와 <우으어이>uiəi → <우어이>uei → <위>ui로 1音節化한다.
- 7) 微韻은 SK에서 <우으에>uiəi → <우에>uei → <위>ui로 1音節化한다. 단지 微韻 唇音字의 -i형은 <빅·미>pi·mi로 수용하여 <비·미>pi·mi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 8) 支韻·脂韻 丙類는 SK에서 <우이우이>uiui → <이우이>iui → <유>ju로 1音節化한다.

On the Changing to One Syllable in Sino-Korean

- mainly on the Third Rounded Rhymes contained Vowel Finals -

Lee, Kyong-Chul

In this paper, I researched how third rounded rhymes contained vowel finals reflected to Sino-Korean mainly focused on the changing to one syllable.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In Sino-Korean, B type of third rounded rhymes appeared as a one syllable /o-/ or /u-/ and A type appeared as a one syllable /j-/.
- 2) Rhyme *Ge*(戈) changed to one syllable as like uia→ua→oa in Sino-Korean.
- 3) B type of rhyme *Zhai*(祭) appeared -ui type in Sino-Korean. It is a reflection of Late Ancient Chinese.
- 4) A type of rhyme *Zhai*(祭) changed to one syllable as like uiəi→jəi in Sino-Korean.
- 5) The labial of rhyme *Fei*(廢) appeared -jəi type in Sino-Korean. It is a reflection of direct of changed to /wiei/.
- 6) A type of rhyme *Zhi*(支) and *Zhi*(脂) changed to one syllable as like uiəi→uei→ui, uiəi→uei→ui in Sino-Korean.
- 7) Rhyme *Wei*(微) changed to one syllable as like uiəi→uei→ui in Sino-Korean. but The labial of rhyme *Wei*(微) appeared -i type changed form -ii type in Sino-Korean.
- 8) B type of rhyme *Zhi*(支) and *Zhi*(脂) changed to one syllable as like uiui →iui→ju in Sino-Korean.